

6개월치 비 단 이틀에...대비할 틈도 없이 '물폭탄'

전남 호우 피해 왜 컸나

시간당 80mm ...산사태·침수 피해

기상청 토의땀 "500mm" 의견도

실제 예보는 "300mm 이상"

시점 앞당기고 정확도 높여야

5, 6일 이틀간 집중 호우로 2명이 숨지고 2만 1484ha(약 6500만 평)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되면서 막대한 비 피해를 불러온 배경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6개월(1~6월)간 누적 강수량을 뛰어넘는 큰비가 단 이틀간 집중되면서 미처 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원성이 농가 등 호우 피해 주민에게서 일단 나온다.

기상청의 지난 5일 기상 예보 전 토의 과정에서 일부 예보관이 "최대 500mm 이상 호우 가능성"까지 내다봤다는 점에서 소극적 예보를 넘어 적극적 예보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농가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예상강수량에 따라 관계당국과 주민들의 경각심 차원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호우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0시부터 6일 오후 2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해남 현산 526mm, 장흥 관산 460.5mm, 진도 지산 440mm, 고흥 도양 414.5mm, 강진 마량 398.5mm, 보성 득량 374.1mm, 여수 산단 368mm, 광주 남구 190.5mm다.

단 이틀 내린 비 양의 합이 최근 6개월(1~6월) 내린 비의 양을 넘어서거나 육박한 점도 피해를 키웠다. 해남의 경우 지난 6개월간 내린 비의 합이 496.4mm였으나 해남(현산)에 최근 이틀 내린 비의 양은 이보다 30mm가량 많았다. 장흥(513.4mm), 고흥(449.7mm), 여수(520.4mm) 등의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 역시 이틀간 내린 비의 양에 육박할 정도로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쏟아졌다. 일부 강우가 집중된 지역은 시간 당 최대 강수량

을 갈아치웠다. 장흥 관산 79.0mm, 강진 마량 74.0mm, 고흥 도양 72.5mm, 해남 현산 72.0mm, 진도 69.5mm 등이다.

기상청의 예보 타이밍과 정확도, 예보 방식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광주기상청은 지난 5일 예보에서 "5, 6일 이틀간 광주-전남 지역 예상 강수량은 50~15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틀간 실제 쏟아진 비는 남해안 지역의 경우 적은 곳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300mm 안팎부터 500mm를 넘어선 곳도 있었다. 밤사이 비가 더 올 경우 기상청 전망치의 갑절 이상의 강수량 지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호우 피해를 본 농가를 중심으로는 예보 시점을 조금 더 앞당겨 대응할 시간을 주고, 정확도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광주기상청의 지난 5일 예보 발표 전 토의 과정에서 일부 예보관이 "지난해 8월 물난리를 부른 집중호우때와 기간 배치, 구름대 등이 유사하다. 최대 500mm 이상의 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으나, "많은 곳은 300mm 이상"으로 접점을 찾아 예보한 것은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최대 강수량 300mm와 500mm 이상은 호우를 대비하는 관계당국이나 농가 등 주민 입장에서 차원이 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전남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을 지낸 농민 김성보 씨는 "기상청은 야속하게 틀릴지 모르겠으나, 우리 기상청 예보는 사전에 안내하는 '예보'가 아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중계'에 그치는 것 같다. 예보 정확도도 틀리기 일쑤"라며 "특히 장마철의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예상 강수량 등을 보수적으로 잡는 관행을 벗어나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상 예보 토의 과정에서는 같은 자료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접점이 이뤄진 것은 다수 예보관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며 "강수량 변동성이 크다고 각별하게 안내했으나 농민 등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보다 신속, 정확한 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위태위태 6일 오후 해남군 현산면 탐동마을 주택 뒤로 흐르는 하천 제방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주택 골조가 드러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두환 신군부, 미국에만 알리고 통보 없이 광주 진압

미국무부 5·18 문건 추가 공개

12·12 직후 미대사 만난 전두환

"개인적 정치 야심 없어" 해명

군부가 1980년 5월 27일 광주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전날 계엄군 투입 결정을 미국에 미리 알린 사실이 미 정부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6일 외교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문서 사본 21건에는 1980년 5월 26일 월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한 결과 보고가 포함됐다.

이 자리에서 최 실장은 "계엄사령관처럼 차분하

고 책임감 있는 이들을 포함한 다수 군 지휘관들은 (광주) 상황이 더 악화하도록 뒤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과 일부 간부들은 당초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 통보한 이후 낮에 재진입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 방식이 저항 강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군사행동은 사전 발표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계엄군 재진입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 국무부가 1989년 광주특위에 보낸 답변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적이 있지만, 관련 미 정부 문서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2·12 사태 직후인 1979년 12월 15일 글라이스틴 대사의 전두환 보

안서령관 면담, 1980년 5월 23일 박종훈 국무총리 서리 면담 결과 등도 포함됐다. 면담에서 전두환은 12·12 사태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에 저항해 벌어진 일이라며 "개인적 정치 야심은 없으며 최극히 대통령의 자유와 정책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대사관이 1980년 5월 22일 국무부에 보낸 상황보고에는 광주에서 계엄군과 지역 시민위원회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위원회에는 김대중과 가까운 인사들도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협상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은 김대중 서방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not negotiable)"라고 밝혔다. 이들 문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물난리 악몽 섬진강댐 수위는?

"저수율 25%... 걱정할 수준 아냐"

전남지역에 이틀간 최대 50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댐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8월 11명의 사망자를 내고 2400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가져온 '섬진강 물난리'의 기억 때문이다.

6일 환경부 영산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섬진강댐 수위는 지난해 홍수 당시보다 저수율과 저수량은 4분의 1 수준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 초 물난리 당시처럼 수문을 사실상 최대치로 열어 하류 쪽 물난리를 부를 상황은 아니라는 게 홍수통제소 측 설명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섬진강댐 수위는 179.40m로 나타났다. 섬진강댐 계획홍수위가 해발 197.7m, 제한 수위는 196.5m라는 점을 고려하

면 20m 남짓 여유가 있는 셈이다. 댐 저수율은 24.7%, 저수량은 1억1500만t으로 집계됐다. 초당 유입량은 174t, 방류량은 4t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수위가 높아질수록 댐 표면적이 넓어져 저수 가능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20m 남짓 남은 여유 수위는 일반적인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통제소 측은 부연했다.

반면 초유의 물난리를 불러왔던 지난해 8월 초 섬진강댐 수위는 댐 자체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였다.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30분 당시 댐 저수율은 97.80%, 저수량은 4억5500만t이었다. 이 시기 댐으로 유입되는 수량은 초당 최대 3500t에 육박했다. 방류량도 초당 1800t에 달했다. 섬진강 물난리 직후 구례·곡성 등 섬진강 하류 주민들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첫걸음...이달 중 용역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당성과 실행 방안 등을 연구하는 용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전남도, 용역 수행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실무회의를 거쳐 과업 내용 등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이달 중 용역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의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용역에서는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광

역생활경제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선행 논의 사례를 검토하고 광주·전남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행정 통합과 경제 통합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지역에 맞는 방식을 고민하고, 사·도민 여론 조사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용역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용역에 따른 광주·전남 행정통합 실행 논의는 민선 8기에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2단계에서는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사·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시 계획에 따라 용역은 올 초 시작돼 했지만,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 통합 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간 이견 차이와 전남도의회 반발 등으로 관련 예산 확보가 지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